


 <p>MAOT MAKE ALL OF TECHNOLOGY</p>		<h1>공 지 사 항</h1>	
일시	2020. 9. 28.(목)	출처	한국시설안전공단 보도자료
담당부서	기술융합실	담당자	최영호 yhchoi@maot.co.kr (070-7007-7979)

<h2>&lt;보도자료&gt;</h2>			
		<h1>한국시설안전공단</h1>	
자료배포일	2020. 9. 28.(월)	보도희망일	즉시
총 매 수	5매(참고자료 포함)	문의 : 시설성능연구원 김영민 부장 (055-771-4731)	

## 건설현장 위험상황, 스마트 안전기술로 해결한다!

- 스마트 건설 챌린지(건설안전) ... 총 15개팀 참가 5일 간 현장 경연 -

한국시설안전공단(이사장 박영수)은 「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\*」의 일환으로 ‘스마트 건설안전’ 경연을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공동으로 개최한다.

\* (스마트건설 챌린지) 건설안전, 토공자동화 및 첨단측량, 스마트 유지관리, BIM, 3D프린팅, UCC 등 6개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별 기술력을 현장시연, 경연 (6.29 ~ 11.27)

- ‘스마트 건설안전’은 설계-시공-유지관리 등 건설 전(全) 단계에 첨단기술(BIM, 드론, 로봇, IoT, 빅데이터, AI 등)을 융합시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.

- 특히,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건설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화·첨단화 건설장비를 도입한 스마트 안전기술이 절실하며,
- ‘스마트 건설안전’은 설계-시공-유지관리 등 건설 전(全) 단계에 첨단기술(BIM, 드론, 로봇, IoT, 빅데이터, AI 등)을 융합시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특히,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건설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화·첨단화 건설장비를 도입한 스마트 안전기술이 절실하며,
- 건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, 기반시설 노후화 급증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 및 유지관리기술을 통한 지속적인 최적의 성능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.
- 이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(R&D) 사업\*을 추진 중이며, 이번 경연도 스마트 건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.
  - \*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R&D: '20.4~'25.12, 2,108억원(정부1,476억원, 민간 632억원)
  - 기반시설 첨단관리(Total Care)기술 R&D: '22~'27(예타중), 3천5백억원 규모
- ‘스마트 건설안전’은 총 15개 팀\*(설계·시공·SW 업체 컨소시엄 등)이 참가하며, 서류심사를 통과한 상위팀들이 5일 간 현장경연을 펼친다.
  - \* (참가팀) 극동건설, 금강주택, 남양건설, 대림건설, 대우건설, 두산디지털, 두산건설, 롯데건설, 마엣, 신동아건설, 쌍용건설, 지유ENG, 포스코건설, 현대ENG, SK플래닛